

# 전북도, 가뭄 총력대응 체제 돌입

### 일부지역 가뭄피해 발생 선제 지원·타 작물 전환

### 특교세 31억 투입 가뭄대책사업 7월말 완료

전북도는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도내 일부지역에서 열매 등 가뭄피해가 발생, 앞으로 가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조, 가뭄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6월초 남원, 순창, 고창 등 일부 지역에서 논물 마름(10ha) 및 밭 시들(18ha)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가뭄이 이어지면서 6월 중순 들어 고창 지역에서 열매(17ha) 및 논물마름(3ha)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초 남원, 순창, 고창의 논물 마름(10ha) 및 밭 시들(18ha) 발생지역은 관정, 하상골작 등 긴급용수공급을 통해 피해를 해소한 바 있다.

고창의 논물 마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급수차를 통한, 긴급급수를 실시, 열매피해 발생 농지는 관정개발을 통한 용수공급 및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드러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악화를 우려해 농업인 피해신고 전, 먼저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지원키로 결정했다.

고사 농작물에 대한 대체작목 과중 후에는 피해를 확인할 수 없어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피해규모가 확정되면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불교 종법사 예방 지난 16일 익산시에 위치한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응철 종법사를 예방하고 있다.

이날 14개 시·군,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가뭄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소집하고, 현재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등에 대한 단계별 용수공급대책 수립, 관정·간이양수장·준설 등 가뭄긴급대책사업 신속 추진, 논물마름·밭시들 등 가뭄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선제적 긴급용수대책 추진, 농경퇴소활용·방류최소화 등을 통해 가뭄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도내 평균 강수량은 210mm로 평년 372mm의 56.3% 수준에 그치고 있고, 농업용 저수지 평균저수율도 46.5%로 평년저수율(57.4%)보다 낮은 상황으로 지역별 가뭄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가뭄대책을 추진 방침이다. 먼저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31억원을 투입 관정개발, 저수지준설, 양수장설치, 송급수관로 설치 등 가뭄대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차 긴급 가뭄대책사업비 20억원은 시군 교부 완료, 추가 시군관리저수지 준설사업비 11억원 교부 예정이다. 각 시·군에서는 4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정, 하상골작, 들샘개발, 간이양수장 등 긴급 용수공급대책 및 용수원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수부족 지역에 대한 단계별 용수공급대책 수립·추진, 저수지 제한급수, 말단부 퇴수활용 공급, 하천유지용수 방류 최소화 등을 통해 저수지 저수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도, 민간예찰단 재난안전체협

전북도는 지난 16일 전북119안전체협관에서 재난예찰단 민간예찰단 8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요령, 화재시 대피, 태풍, 지진, 자동차 전복, 생활안전 등 7개 코스의 재난안전체협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체협의 목적은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난예찰단 민간예찰단의 역량을 강화,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다.

원주군 민간예찰단 서우정씨는 "오늘 체험을 통해 재난발생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체험하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여름철 안전사고 없는 전북만들기 '최선'

### 도, 시군 안전정책 조정회의 개최... 전통시장 화재·재난·폭염 등 대책 마련

전북도는 전통시장 화재, 폭염대책 등 재난안전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군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김일재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 및 시군 안전분야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부시장 야시장 등 안전대책, 지역특성에 적합한 도민참여형 훈련 실시, 2017 여름철 폭염대책 등 재난안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도

와 시군이 협업하여 안전한 여름나기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한옥마을과 더불어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도와 전주시, 소방서 등과 함께 소화기 비치, 피난동선 안내 및 동선 확보를 위한 물건적치 금지 등 안전 문제 해결에 의견을 모았다. 또, 144회 재난안전 훈련을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실제 재난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및 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매뉴얼 개

편 등을 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최근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대비 TF팀 운영, 무더위 쉼터 확대, 재난도우미 운영, 취약계층 보호 및 폭염대응 도민행동요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물놀이 등 재난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6월부터 9월 초까지 100일간을 도민안전 특별대책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7개 실국이 참여하여 가뭄, 폭염, 도시침수, 물놀이 등 15개 분야를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 보건환경연구원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의 예방관리를 위해 집중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대형건물,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의료기관, 요양시설, 목욕탕,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화장실 냉·온수와 분수 등이며 레지오넬라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설의 경우 청소와 소독 등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1~2주 후 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은 20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2017년 10대 주의해야 할 감염병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전자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대형건물 냉각탑수, 호흡기 치료기기, 샤워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온수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며,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여 독감과 폐렴을 유발한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성황'

### 대상·최우수상 13팀 본선 출전

전북도가 한국표준협회와 함께 기업 등에서 자율 구성된 분임조를 통해 자사 품질경영 및 품질혁신 활동 성과사례를 발표하는 '2017년 전라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지난 16일 전북대(진수당)에서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북도 진흥 정무부지사,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 (주)정석케이칼 김용현 대표 등 공공기관·기업체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상속 과정, 현대자동차(주)전주공장 조후상 기술주임 등 5명에게 전북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 자주적인 모인 활동을 통한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등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975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가 주최, 한국표준협회(전북센터)가 주관, 현장개선, 안전품질, 상생협력, 사무간접 등 5개 분야에 19개 품질분임조가 참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1팀), 최우수(12팀), 우수(6팀)를 선발하여 도지사 상장을 수여, 이 중 대상·최우수상 13팀은 오는 8월, 충북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 'K-Festival' 서 전북 대표 축제 홍보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회 K-Festival(한국 축제&여행 박람회)에 참여해 전북의 대표 축제를 홍보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는 물론 전국 주요 축제들이 참가, 홍보와 함께 축제 콘텐츠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전북에서는 전주 세계소리축제, 군산 시간여행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부안 마실길축제 등이 참여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펼쳤다. 전북 홍보관에서는 전북도의 관광안내지도 등 전북관광 홍보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전북 투어패스 홍보 동영상과 전북도 홍보 동영상을 방영해 홍보부스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알렸다. /김진성 기자

또, 홍보부스를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다트던지기, 전라북도 관광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비빔밥모양 비누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홍보부스를 방문한 한 관람객은 "전북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오늘 홍보관에 와보니 전북에 다양한 축제가 많이 있어서 축제 때 맞춰서 한번 가보고 싶다"며 전북관광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특히, 다음 주에 시작하는 무주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대한 홍보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회기간 중 VR체험을 통해 가상투기 등을 할 수 있고 태권도 시범 공연과 태권댄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에 관람객들은 흥미를 보였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